

# 전통과 권위\*

— 니체에 있어서 전통의 해체와 복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

강용수 (중앙대 철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주제분  
류

문화철학, 정치철학, 해석학

주요  
어

권위, 전통, 가치, 우월성, 승인, 귀족주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자선

요약  
문

본 연구의 목적은 권위의 상실이라는 한국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철학사에서 권위는 일반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계몽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을 거치면서 탈권위주의 내지 탈전통주의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권위가 생활세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규범이라는 점에 착안할 때 권위의 생산성과 긍정성에 대한 선택작업이 필요하다. 니체를 권위에 대항한 학자로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에 반대하여, 논자는 니체가 신의 죽음과 가치의 해체를 통해 권위를 파괴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평등과 인권을 강조하는 기독교 윤리에서 우월한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되는 역권위화 현상을 수정하려고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니체가 권위를 해체한 입장은 역사비판, 내면화 비판, 가족윤리 비판 등에서 구체화되고 권위의 복권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파시즘, 혈연주의, 부권주의 등에서 잘 다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논자는 개별자 자신이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질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문화공동체 내에서 하나의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는 귀족적 자선의 의무를 정당화하여 구성원들 간에 적대감을 해소함으로써 정서적인 차원에서 권위의 재정립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4 -AS0027).

## 1. 현대는 탈권위화의 시대인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권위의 위기는 사회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철학의 근본주제이기도 하다. 알프레트 쉘프(A. Schöpf)에 따르면 “권위는 우위와 명령의 준수(복종)를 기대하는 사람이나 제도의 자연적 또는 획득된 우월성을 일컫는다.”<sup>1)</sup> 철학의 분과에서는 플라톤(Platon)이 ‘철학자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진리를 인식하는 계급에 특권을 부여했고 신학적 해석학의 영역에서는 하느님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계몽주의는 그러한 성서적 권위에 대항하여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고 해방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더 나아가 포스트모더니즘은 합리적 이성의 근본 틀마저 해체하려고 한다. 이성의 자율성과 실천적 가능성은 권위에 대한 철저한 저항을 통해 담보될 수 있으나 권위는 의식적인 범주라기보다는 前사회적인 과정인 가족에서 이미 형성되는 인성과 결합하기 때문에 권위와 지배가 없는 사회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하나의 유토피아적인 가상일뿐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족윤리는 사회화를 통해 권위가 내면화된 첫 단계에 속한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S. Freud)는 가족의 분석에서 권위의존성과 유아기적인 퇴행을 개인의 성격형성에 큰 장애물로 보았고 권위의 무의식성에 대한 분석은 프랑스 철학에 수용되어 (포스트)구조주의자 간에 쟁점화 되었다.<sup>2)</sup>

호르크하이머(M. Horkheimer)를 중심으로 권위에 대해 가장 활발한 토론을 주도한 프랑크푸르트학파(Frankfurter Schule)는 가족과 파시즘간의 이데올로기적 유사성<sup>3)</sup>에 주목하고 1930년대 유럽에서 등장한 파시즘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마르크스주의와 정신분석학을 접합시켜 연구하였고 인간지배를 위해 변용된 이성의 도구화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호르크하이머는 『권위와 가족Autorität und Familie』(1933)라는 논문에서 권위를 사회구성을 위한 세 가지 범주, 즉 보편성(문화), 특수성(권위), 개별성(가족)의 변증법적인 구조의 관점에서 다루고 이상적인 권위를 물화(Verdinglichung)되지 않는 종속관계라고 규정한다. 자유로부터 권위로의 도피에 주목하는 프롬(E. Fromm)은 전통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계급이 스스로 불안을 느껴 강제적 권위에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는 행동의 비합리성을 분석하고 근원적 유대감의 상실이 권위에 대한 ‘자동인형적 순응’을 야기한다고 비판한다. 마르쿠제(H. Marcuse)는 진리를 권력에 강제로 복종시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현상 때문에 ‘영웅적 민족 실재론(Heroischvölkischer Realismus)’이 “전체주의적 실존주의”<sup>4)</sup>에 바탕을 둔 권위주의 국가에 자양분을 제공한다고 본다. 정치철학에서는 홉스(Th. Hobbes)가 주권자의 권위를 평화와 안전, 시민의 보호<sup>5)</sup>의 의무로부터 근거짓고 칼 슈미트(C. Schmitt)는 법을 만드는 주권자의 결단을 다루면서 권위를 진리로부터 분리<sup>6)</sup>

1) Alfred Schöpf, Aritikel “Autorität”, in: *Lexikon der Ethik*, Otfried Höffe (Hg.), München 1997, S. 19.

2) 예를 들어 라캉(J. Lacan)은 권위를 욕망을 가두는 언어적인 구조로서 본 반면에 들뢰즈(G. Deleuze)는 욕망의 생산성으로부터 ‘탈주’의 가능성을 끄집어내고자 한다.

3) Herbert Marcuse, “Studie über Autorität und Familie”, in: *Ideen zu einer kritischen Theorie der Gesellschaft*, Frankfurt a.M., 1969; Max Horkheimer, “Autorität und Familie”, in: *Gesammelte Schriften* Bd. 3, Frankfurt a.M., 1988, S. 326-417.

4) 마르쿠제에 따르면 파시즘의 사상적 원천은 1) 영웅주의 2) 생철학 3) 비이성적 자연주의 4) 보편주의이다. H. Marcuse, “Der Kampf gegen Liberalismus in der totalitären Staatsauffassung”, in: *Zfs, Jahrgang* III, 1934, Heft 2, S. 162-164.

5) Thomas Hobbes, *Leviathan*, Jakob Peter Mayer (übers.), Stuttgart 2000, 14-20장 참조.

하는 홉스를 ‘정치적 신학(Politische Theologie)’의 선구자로 옹호한다.<sup>7)</sup> 권위에 대해 가장 풍부한 분석을 이루어 낸 아렌트(H. Arendt)는 권위와 권력(Macht)을 구분하면서 전자가 폭력(Gewalt)을 배제하지만 후자가 폭력의 효과, 즉 공포감과 결부된다는 점에서 권위에 대한 복종이 권력에 대한 복종과는 달리 자발적이고 의무적인 이유는 위계질서의 정당함이 보편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권위에 바탕이 되는 정당한 권력은 자유롭게 보장된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되는 연대감과 지지, 동조와 신뢰에 근거하는 반면에 폭력은 물리적 강압수단, 그것의 효율성과 규모에 기초한다. 아렌트는 권력과 폭력의 분리를 통해 후자에 의존하는 정치체제를 권위주의로 규정한다. 사회학자인 베버(M. Weber)의 인간 행위에 대한 네 가지 유형론<sup>8)</sup>에 따르면 ‘전통적 권위’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들이 함께 속하는 전승된 가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복종하는 규범의 총화이다.

권위가 갖는 함의의 중층성과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는 탈권위주의의 시대에서 권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련하여 권위의 정당화와 타당성에 대한 개념적 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권위의 정립 내지 복권에 주안점을 둔다. 권위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없이는 사회의 존립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위는 필요악이다. 모든 권위를 파괴하는 무권위의 사회는 아나키즘이고 그 반대로 권위의 절대화는 파시즘이라는 딜레마를 고려할 때 권위에 대한 과소평가와 과대평가 사이에서 균형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권위에 대하여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의 사회 경험과학과는 차별화된 철학적 성찰이 요구된다.

권위에 따르는 것은 자신의 판단을 포기하고 외부의 가치를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이다. 오래전부터 철학은 ‘우상’(Bacon)을 배격하면서 전통과 대항적 관계를 형성했지만 우리는 모든 권위를 파괴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권위를 선별하고 그것에 합당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논자는 니체를 중심으로 새롭게 정당화가능한 권력으로서의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의 중점사항은 기존의 연구가 권위의 파괴적인 부분만을 부각하고 그것의 생산성을 배제한 것과는 다르게 그러한 이론의 취약점을 보완,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구성을 위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타자의 우월성과 타자성의 승인에 대해 니체의 계보학(Genealogie)은 권위의 재정립이라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 니체연구의 성과가 한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올바른 권위가 새롭게 복권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니체를 권위의 해체자로만 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견해와는 반대로 권위의 재정립에 관심을 가진 보수주의자로서 부각시킨다.

6) 홉스에 따르면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명령으로서의 합법성의 근원이다. ‘법을 만드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권위이다.’(Non veritas sed auctoritas facit legem), Th. Hobbes, Leviathan, 26장; 국가가 정의라고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진실보다 우위에 있다. 칼 슈미트는 “정치적 결단의 구속력은 높은 진리가 아니라 주권자의 권위 자체로부터 도출한다.” Reinhard Mehring, *Carl Schmitt zur Einführung*, Hamburg 1992, S. 57.

7) Hans Krupa, “Carl Schmitts Theorie des Politischen - Mit einem Verzeichnis der Schriften Carl Schmitts -”, Leipzig 1937. 김효전 역, “어떠한 정치체제도 권력유지의 단순한 기술 만으로서는 한 세대도 지속하지 못한다. 이념도 정치적인 것에 속한다. 그 이유는 권위 없이는 어떠한 정치도 존재하지 못하고 또한 어떠한 권위도 확신의 에토스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Carl Schmitt,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1923), <http://deutsch.donga.ac.kr/jahrgang%2014/gropa.html>에서 재인용.

8) 베버는 ‘목적합리적 행위’, ‘가치지향적 행위’, ‘감성적 행위’ ‘전통적 행위’의 분류에 따라 그것에 대응하는 ‘합리적-법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와 전통적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형성되는 ‘전통적 권위’를 구분한다.

## 2. 권위의 계보학: 逆권위화

기존의 권위는 비합리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정당화되었다. 즉 ‘권위는 초월성으로서만 가능했다.’(C. Schmitt) 그러나 탈주술화된 근대에서 권위는 세속적으로 정당화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물화’되며 이러한 변질된 이성(Kalkül)으로서의 경제적인 가치(교환가치)는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실천규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료주의는 ‘관리되는 세계’(Verwaltete Welt)를 지향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로 변모하고 있다. 올바른 권위가 공동체의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면, 우리는 전통에 대한 자연발생적인 소속감의 공유를 통해 가치의 지배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권위가 자발성이 아니라 강제성을 갖는다면 그것은 명령(결정)과 복종간의 권리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권리를 ‘복종받을 권리’와 ‘복종할 권리’로 나눌 때 권위는 우리의 선호, 취미와 관계없이 자신을 복종시키는 힘이다. 인정과 승인을 거쳐 권력과 지배가 무조건적으로 정당화될 필요가 있다면, 권위는 공동체(Gemeinschaft)를 위해서 보편적으로 승인될 수 있지만, 이익사회(Gesellschaft)에서는 폭력일 수 있다. 왜냐하면 권위는 어떤 이익집단간의 타산성에 바탕을 둔 계약이 아니라 공동체 유지를 위해 정당화되어야만 하는 사회적 정언명법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에 대한 논의는 계몽주의와 땀 수 없다. 인간의 자기규정(Selbstbestimmung)에 입각한 계몽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의 획득과 독립성의 증대를 위해 권위가 감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삶의 양식을 전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권위적 인간의 태도는 칸트적 의미에서 계몽된 인간의 ‘성숙함’(Mündigkeit)<sup>9)</sup>과는 거리가 멀다.

反계몽주의자로 잘 알려진 니체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상당히 활성화되었고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니체가 남긴 사상적 유산을 푸코(M. Foucault), 들뢰즈(G. Deleuze), 데리다(J. Derrida) 등에서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니체연구의 르네상스를 맞이하여 하이데거가 제시한 몇 가지 주제인 삶에의 의지, 영겁회귀, 위버멘쉬(Übermensch) 등에만 연구가 국한되지 않고 다양화, 분화, 심화되었지만 권위의 긍정성에 대한 글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니체연구』(Nietzsche Studien)라는 전문잡지에도 권위에 대한 논문이 전혀 없는 까닭은 신의 죽음을 선포한 니체를 단순히 탈권위주의자로 해석하려는 편향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니체를 정치적인 오명으로부터 구제하려는 탈나치화의 시도, 예술가적 주체를 정립하려는 미학주의와 주체의 죽음을 선언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니체를 권위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학자로 몰아세우는 단편적인 해석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니체는 그의 권력의 존재론에서 권위를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 그의 철학의 지형을 세부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사용되는 ‘계보학’이라는 방법론은 권위를 그 자체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배후의 관심과 그것을 떠받쳐주는 ‘지층’에 대한 탐색작업이다. 논자의 관점에서 볼 때, 니체의 의도는 허무주의(Nihilismus)의 선언을 통해 무엇보다도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이 갖는 힘의 우위성과 가치의 우월함을 노예

9) I. Kant,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 Göttingen 1985, S. 55; 같은 책, 이한구 편역,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in: 『칸트의 역사철학』, 서울: 서광사, 1992, 13 쪽.

의 저열함으로 대체한 역권위화 현상에 대해 수정작업을 수행하려는 것이다. 즉 가치의 전도는 기독교적, 플라톤적, 금욕적 가치체계가 힘의 우월성을 받아들이지 않은 노예도덕의 객관화이고 반영이라는 점을 밝히고 역전된 가치위계를 다시 뒤집는 것이다. 계보학은 어떻게 낮은 가치가 높은 가치로 자리매김했는가라는 역권위화의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권위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전략이다.

니체는 어떻게 “물리적인 힘을 갖지 않은 (아무런 군대도, 무기도 전혀 없는) 사람”이 “특히 물리적인 폭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권위를 획득하게” 되었는가를 묻는다. 약자가 “현명한 정치가” “승리하는 약탈자” “군주들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경쟁하면서”도 그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이라는 최고의 폭력”을 통해 “신앙”을 일깨웠기 때문이다.<sup>10)</sup> 그는 ‘신성한 거짓말에 대한 비판’(Kritik der heiligen Lüge)에서 기독교가 지배하면서 자연의 질서에 따른 우월함의 서열은 무너지게 되고 거꾸로 약자들의 속성들이 오히려 칭찬과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약자들이 우선 “권력, 권위, 무조건적인 신용을 자신의 편으로 해야만”<sup>11)</sup> 하고 신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에 호소함으로써 좋고-나쁨(Gut-Schlecht)을 좋고-악함(Gut-Böse)으로 가치를 전환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생존 전략이다. 그 예는 겸손과 약함, 부정과 금욕 등을 실천 덕목으로 삼는 기독교이다.

권위를 희석화하고 소멸하는 데 인간 평등의 이념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프랑스 혁명과 공산주의 폭동에서 드러난 인권에 대한 요구는 바로 “도덕에서의 노예 폭동”(Sklavenaufstand in der Moral)이다. 자연적인 질서와는 상반된 평준화의 성향이 강화된 노예본성에 기초한 집단주의는 “원한-도덕의 승리, 신의 죽음을 야기한 권위의 붕괴(Autoritätzerfall)”에 따른 결과이다.<sup>12)</sup> 기독교의 보편윤리가 세속화된 자본주의에서도 역시 가치의 올바른 위계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니체의 지적이다.

### 3. 전통의 탈가치화와 권위의 위기

니체는 전통이 명령의 형태를 띠는 점에서 본래 권위적이라고 특징짓는다. “전통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유용성을 명령하기 때문이 아니라 명령하기 때문에 사람이 따르는 보다 높은 권위이다.”<sup>13)</sup> 요약하면 인륜은 “관습에 대한 복종”<sup>14)</sup>이다. ‘사회적인 정언명법’으로서 강제성과 명령 그리고 제약력을 갖는 전통에서 권위는 사회적 ‘개인적 유용성’이 아니라 ‘명령과 복종’의 상하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할 문제이다. 권위의 정당성은 경제이론, 공리주의, 복지정책등과는 전혀 다른 차원, 즉 손해와 이익의 계산가능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범주인 결단에 속한다. 그러므로 “아무런 전통이 명령하지 않는 사물에는 아무런 인륜도 존재하지 않는다.”<sup>15)</sup>

10) N 14 [189]; KGW VIII/3, S. 168-169. 니체 저서의 인용은 다음을 인용하며 개별적인 저서의 약기들은 일반적인 학계의 관례에 따라 표기한다. Friedrich Nietzsche,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G. Colli und M. Montinari (Hg.), Berlin/ New York 1967ff. (=KGW).

11) N 15 [42]; KGW VIII/3, S. 228.

12) Urs Marti, *Der große Pöbel- und Sklavenaufstand*, Stuttgart 1993, S. 58.

13) “Was ist das Herkommen? Eine höhere Autorität, welcher man gehorcht, nicht weil sie das uns Nützliche befiehlt, sondern weil sie befiehlt.” M 9; KGW V/1, S. 18.

14) M 9; KGW V/1, S. 17f.

15) Ebd.

그러나 니체가 보편적 규범을 인간의 삶을 도구화하고, 미래의 행위에 대한 계산가능성의 증대와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사회적인 강제(Sociale Zwangsjacke)”<sup>16)</sup>라고 비판한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권위에 대한 저항은 궁극적으로 개별자가 자유를 더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통을 통한 삶의 규정이 적을수록, 인류의 영역은 작아진다. 자유로운 사람은 비인륜적이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에서 전통에 의존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인간의 근원적인 상태는 ‘개별적’, ‘자유롭고’, ‘자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고, ‘계산 불가능한 것’처럼 ‘악’하기 때문에”<sup>17)</sup> 그것을 규제할 윤리규범이 없어서는 안된다.

권위와 자유는 서로 지양될 수 없고 화해 불가능한 대척점을 이룬다. 권위를 극복하고 자유의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서 다룬,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메타포가 함의하는 맹목적인 순종, 반항적 부정, 순수한 긍정의 개념에서 잘 나타난다. 무한한 창조성을 형상화하는 어린아이의 이상을 고려하면 “권위에 대한 평가는 창조력의 감소”<sup>18)</sup>를 의미한다.

권위를 쉽게 따르는 무리(Herden), 대중(Massen), 낮은인간들(Niederige), 평균인(Durchschnittliche), 군인(Soldaten) 등을 새롭게 조직하며 탄생하는 정치체제는 개인의 자율성을 위협한다. 권위와 자유의 대립관계와 관련하여 니체의 개인주의(Individualismus)는 사회적인 연대나 결합을 부정하고 개별자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무정부주의이다.

서양철학에서 권위의 개념은 본래 신의 속성에 속한다. 세계를 창조한 전능(Allmacht)의 신은 전지, 전선, 정의뿐만 아니라 합법성 모두를 포괄한다.<sup>19)</sup> 니체가 선포한 ‘신의 죽음’은 제도를 해체하여 시민사회의 “원자적 혁명”<sup>20)</sup>이라는 위기를 가져온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공리주의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유용성의 지배는 신학적인 이념에 대한 해석의 산물이며 신의 죽음 후에도 잔존하는 형이상학적 사유, 즉 ‘문법’<sup>21)</sup>의 효과이다. 신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양태(술어)가 환원되는 존재(주어)이다. 신의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인 증명’ 또한 완전성이라는 관념(속성)에 대응하는 실체를 필연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인간이 권위라는 이데올로기적 가상으로부터 쉽게 탈피할 수 없는 이유는 ‘주어와 술어’에 대한 언어학(Semiotik)적인 습관적인 믿음<sup>22)</sup>이 신의 처벌과 보상이라는 도덕적인 필연성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상위 질서에 따르는 수동적인 행동방식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노예의 무능력을 의미한다. 구속과 복종의 상태를 지속하고자 원하는 ‘반동적’(Reactive) 인간은 죽은 신의 새로운 부활을 정치체제에서 실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중사회에 대한 비판을 선취한 니체가 ‘이성의 해방적 성격’을 과소평가했다는 하버마스(J. Habermas)의 지적은 담론에 내재된 권력의 속성, 즉 명령과 복종의 메커니즘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할

16) GM II 2; KGW VI/2, S. 309.

17) M 9; KGW V/1, S. 17f.

18) N 748; *Die Unschuld des Werdens II*, Kröners Taschenausgabe Bd. 82, Alfred Baeumler (Hg.), Stuttgart 1956, S. 244.

19) V. Gerhardt, *Vom Willens zur Macht*, Berlin 1996, S. 40.

20) UB III 4; KGW III/1, S. 36.

21) JGB 20; KGW VI/2, S. 28f.

22) “Wir sind aus der Gewohnheit nicht herausgetreten, zu der uns Sinne und Sprache verleiten. Subjekt, Objekt, ein Täter zum Tun, das Tun und das, was es tut, gesondert: vergessen wir nicht, daß dies eine bloße Semiotik und nichts Reales bezeichnet” N 14[79]; KGW VIII/3, S. 5.

수 있다.<sup>23)</sup>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권력에의 의지이며 명령과 복종을 통해 관계의 그물망을 짠다. 권력의 존재론에서 권위는 삶을 구성하는 근본계기이고, 모든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은 권위를 둘러싼 주체들 간의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권위는 ‘보다 더 많은 힘’을 원하는 삶의 의지에 귀속되는 보편적 현상이다.<sup>24)</sup> 삶이 객관화되는 모든 대상에 내재한 탐욕과 독점 그리고 경쟁 등은 우위를 점유하려는 것, 즉 복종 대신 명령하려는 ‘의지의 자유’를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욕, 그것은 명령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령은 특정한 정서(이러한 정서는 갑작스러운 힘의 폭발이다)가 긴장되고, 명료하고, 오직 복종 받는다는 우월성과 안전성에 대한 가장 내적인 확신에 주목하는 것이다. ‘의지의 자유’는 ‘나는 자유롭고 누구나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하는 사람을 고려할 때 ‘명령하는 자의 우월-감’이다.<sup>25)</sup>

권위를 구성하는 두 가지 계기는 명령과 복종이다. 권력관계에서 권위는 다른 힘의 우위를 승인하는 것이며 지배력의 인정은 상호주관적인 영역에 속한다. 승인을 전제로 권위는 ‘자유를 제한’(H. Arendt)하고 타자를 강제적인 힘으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규정하고 복종과 예속을 강요하는 권력이다. 따라서 권위가 자유와 부자유, 자율과 타율의 개념의 짝과 함께 고려될 때 권위의 인정은 자기주장을 스스로 단념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권위가 폭력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에서 자율과 의무의 관념에 배치되지 않는다.

#### 4. 니체를 둘러싼 해석: 해체 또는 복권

##### 1) 권위의 해체

니체에 있어서 권위의 해체 작업은 크게 (1) 역사주의 비판, (2) 강제적 내면화 비판, (3) 탈외디푸스화(Entödipalisierung) 세 가지다.

(1) 반역사주의: 전통적 가치는 인간의 기억을 통하여 전승되고 구성된다. 전통적 기제들에 속하는 가족적인 유대, 조국애, 카리스마, 가부장적 위계질서라는 기표가 작용하는 방식은 공통된 기억에 대한 호소이다. 니체는 역사에 대한 해석의 방식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그러한 전통의 고수와 유산에 대한 연구가 뿌리와 고향에 대한 편향된 존경심<sup>26)</sup>을 불러 일으켜 사고의 비판적 기능과 ‘조형력’(Plastische Kraft)을 해칠 수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기독교의 구원론과 헤겔(Hegel)의 역사철학은 진보의 이념을 내세워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낙관주의를 전개했지만 개인의 삶은 거대담론의 그늘에 가려 생명력을 잃었다. 과거의 중압으로부터 벗어나고 ‘역사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비판적인 역사읽기와 無역사적

23) 하버마스는 니체를 이성의 해방적 측면을 무시했다고 비판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로 평가한다. Bernhard H. F. Taureck, *Nietzsche und der Faschismus*, Hamburg 1989, S. 116; Jürgen Habermas, *Der philosophische Diskurs der Moderne*, 2. Aufl. Frankfurt a.M. 1985, S.104-130; Habermas, *Erkenntnis und Interesse*, Frankfurt a.M. 1973, 특히 S. 362f.

24) 니체는 생명이 있는 모든 곳에 “복종의 언어가 있다는 것”과 “자기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의 명령을 받게 되고” “명령은 복종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명령자가 복종하는 사람의 모든 부담을 짊어지면서 그 때문에 좌절하고, 실험하고 모험한다고 말한다.” *Za. Von der Selbstüberwindung*; KGW VI/1, S. 143.

25) N 25 [436]; KGW VII/2, S. 123.

26) 이것은 니체가 분류한 기념비적 역사, 골동품적 역사, 비판적 역사 중에 ‘골동품적 역사’에 해당된다.

인 망각이다.

(2) 강제의 내면화 비판: 아스만(J. Assmann)이 다룬 보편적으로 제도화된 ‘문화적 기억’<sup>27)</sup>과 비교할 때 니체는 공통된 체험을 저장하는 전통적 기억의 역할과 관련하여 사회심리학적 고찰을 통해 종교, 양심, 윤리, 도덕, 의무의식, 인륜성 등이 허구임을 폭로하고 내면화 자체가 ‘사회적인 강요’라는 사실도 밝혀낸다. 무엇보다도 ‘처벌’을 통해 내면화된 폭력은 모든 사회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일정한 반응양식과 행위의 규정, 그리고 의식의 유형인 문화적 장치를 형성하며 역사적 권위를 재생산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권위에 대한 자동 반응은 기억의 강압을 통한 오랜 적응과 학습의 효과, 즉 사회적 외적 강제의 내면화의 결과이며 잔혹한 억압구조의 표현이다. 이러한 길들임과 적응을 통해 사회적 제도(가정, 교육 기관, 병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전승된 가치는 자생적, 선형적 표상이 아니라 사회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주입된 것이다. “무조건적인 권위에 대한 습관으로부터 드디어 무조건적인 권위에 대한 깊은 욕구가 발생하였다.”<sup>28)</sup> 그러한 충동은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금욕주의의 우월함을 정당화하여 도덕의 지배를 확고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프로이트(S. Freud)의 사상적 선구자로서 평가받는 니체는 권위를 공포를 통해 내면화된 폭력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의식과 무의식 내에서 끊임없이 재현되는 권력작용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양심의 권위는 이제 우선 [...] 개인적인 권위에 대한 보상물로서, 또는 이성의 권위로서 나타난다.”<sup>29)</sup> 심층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권위의존성, 질서예속성은 외디푸스화(거세)를 통해 아들의 욕망을 미리 규정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적으로 실체화하여 규범의 기본규칙이 금기와 허용으로 학습된 결과이다. 규제적 이념으로서 “신적인 권위의 출발점은 두려움을 야기하는 강함이며” 그러한 신경화의 경향은 “정신, 신체, 신경의 전형적인 퇴화에 대한 의지이다.”<sup>30)</sup>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믿음은 양심의 근원이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의 가슴 안의 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 가운데 몇몇의 목소리다.”<sup>31)</sup> 무의식에 등록된 억압적 기표(Signifiant)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사회화과정을 통해 체제 순응적 심성을 형성하고 대중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한다. 쉽게 동원될 수 있는 대중의 심리는 파시즘이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된다.

(3) 탈외디푸스화: 니체는 한편으로는 전통을 옹호하는 극우 보수주의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형학적으로 구성된 민족의 정체성을 ‘가로지르는’ 유목민적 사유의 선구자로서 상반되게 평가받고 있다. 니체가 처음 사용한 ‘노마드’(Nomad유목주의)의 개념을 이어 받은 들뢰즈의 『앙티외디푸스』는 프로이트적 가족윤리와 가부장적인 질서를 넘어서려는 기획에서 가부장적 권위(아버지의 기표)에 의한 욕망의 코드화와 정주민화에 반대한다. 그에 따르면 영토를 횡단하는 탈영토화가 바로 탈권위화를 위한 전략이다.

수목적, 수직적 위계구조에서 리좀적(Rhizom탈중심적), 수평적 질서로의 전환은 모든 지형학적으로 가두어진 영토에서 탈주하고자 하는 해방의 욕망이다. 이러한 사유는 ‘언어의 밖은 없다’(J. Derrida)를 표방하는 구조주의의 폐쇄성을 넘어서 구조의 밖을 체험하고자 하는

27) Jan Assmann, “Kollektives Gedächtnis und kulturelle Identität”, in: *Kultur und Gedächtnis*, Jan Assmann und Tonio Hölscher (Hg.), Frankfurt a.M., 1988, S. 9.

28) N 7 [4]; KGW VIII/1, S. 267.

29) N 9 [43]; KGW VIII/3, S. 19.

30) N 14 [68]; KGW VIII/3, S. 45.

31) “Der Glaube an Autoritäten ist die Quelle des Gewissens: es ist also nicht die Stimme Gottes in der Brust des Menschen, sondern die Stimme einiger Menschen im Menschen” MA II 52, KGW IV/3, S. 214.

모험이기도 하다. 라캉(J. Lacan)에 따르면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근원적 실재와의 단절과 소외 그리고 일정한 거세 공포 속에서 타자의 권위를 수용함으로써 문화의 세계에 편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들뢰즈는 인간이 욕망의 결핍 존재가 아니라 과잉과 창조성의 존재라는 점, 특히 주체의 ‘능동적인 힘’을 새롭게 부각시킨다.

라캉의 ‘상징계’에서, 아버지의 기표와 동일시되는 법과 규범, 제도들을 수용하는 ‘반동적’ 과정에서 들뢰즈는 근원적인 욕망이 충족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거세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의식적 주체와는 무관한 기계적, 무의식적, 분열적인 삶의 흐름이 모든 지형학적인 지도에서 탈주하고 정착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그는 권위라는 제 3자의 입장을 배제함으로써 욕망과 대상, 예를 들어 “어머니와 아이(Mutter-Kind-Situation)”의 이원적 평면화가 초래할 주체의 정신분열화(Schizo)의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sup>32)</sup>

## 2) 권위의 복권

니체의 입장과 관련하여 전통의 권위를 ‘잘못된 방식’으로 복권시키려는 시도는 크게 (1) 파시즘, (2) 군국주의, (3) 혈연주의, (4) 부권주의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각각 카리스마적인 능력, 군사적 상명하복, 정서적인 유대감, 남성우월주의에 바탕을 두고 위계질서를 형성한다.

(1) 파시즘: 니체를 파시즘 옹호에 악용한 보수주의자들의 해석은 무엇보다도 게르만 민족주의와 ‘실존주의적 비합리적 영웅주의’(H. Marcuse)가 히틀러의 독재를 가능하게 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비합리적인 결단을 중요시하는 실존적 인간학이 인간의 행동을 최종 목적에서 정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게 살라’는 니체의 언명을 추종한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정치적 결단이 니체의 사상을 국가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의 제도적 초석을 마련하는 데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되고 있다.<sup>33)</sup> 니체의 무협의를 주장하는 흐름은 존재론(M. Heidegger), 미학(W. Welsch, K. H. Bohrer), 언어학(프랑스 구조주의)이 주도하였고 니체철학의 탈정치화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 군국주의: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불평등구조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권위적 조직인 군국주의는 개인을 민족과 조국이라는 추상적인 이름 하에 소멸시키고 개별자의 자유를 박탈하여 최고권위자의 통제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종속시킨다. 군대는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점에서 권위를 가장 잘 실현한 효율적인 지배체제이며 이러한 매력 때문에 베버(M. Weber)에 따르면 군대는 근대사회의 제반 조직의 합리화의 전형이 된다.<sup>34)</sup> 그러나 니체는 군사주의에서 관철되는 새로운 노예화를 “시대착오”<sup>35)</sup>라고 비판함으로써 자신이 군사문화를 적극 옹호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혈연주의: 전통을 옹호하는 민족주의자는 국가가 같은 ‘땅과 피의 힘’(Erd- und Bluthafte Kräfte, H. Marcuse)에 근거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을 편다. 인종주의, 유럽문화 중심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혈통주의(백인우월주의)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생물학적인 순수성을 통해 전통과 권위의 순수성을 보장하려는 것은 매우 단순하고 위험한 동일화의 오류를 범한다. 특히 이성적 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던 시대에 마치 니

32) Alfred Schöpf, *Sigmund Freud*, München 1982. S. 173 참조.

33) Bernhard, H. F. Taureck, *Nietzsche und der Faschismus*, Leipzig 2000.

34) Max Weber, *Wirtschaft und Gesellschaft*, Tübingen 1972, S. 543.

35) MA II WS 279; KGW IV/3, S. 312f.

체가 반유대주의(Antisemitismus)의 확대와 전쟁 그리고 대량살상(홀로코스트)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호도되었지만 ‘높은 문화의 근원’을 “혼혈”<sup>36)</sup>로 보았던 그는 오히려 게르만 우월주의의 오만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다. “아마도 어떤 순수한 인종도 없고, 다만 순수하게 되는 인종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드물다.”<sup>37)</sup> 혈연주의의 맹점은 핏줄을 통해 가족주의가 내부결속을 다지고 상명하복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외부를 배척하는 고립적 구조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혈연공동체로서 민족주의는 ‘동일한 핏줄’ ‘우월한 혈통’에 대한 우생학적 믿음에 바탕을 두고 히틀러처럼 ‘잡종’이나 ‘열등한 피’(장애인, 동성연애자 등)를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비난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4) 부권주의 對 페미니즘: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에 따르면 가족제도 내에서 권위는 아버지의 권위를 말한다. 권위는 중성적인 용어가 아니라 남성의 권력을 담고 있는 폭력적 이데올로기이다. 권위와 가부장제도의 동일시는 일상화된 담론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프로이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니체는 대체로 남성의 권위를 절대화함으로써 ‘여성의 존재를 부정’<sup>38)</sup>하고 가부장적인 질서를 옹호한 학자로 비난받고 있다. 하이데거(M. Heidegger)에 따르면 니체의 미학은 ‘남성의 미학’을 대변하며 강한 남성에 대한 열망을 위버멘쉬(Übermensch)의 사상에서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니체에 대한 남성중심주의적 해석이 전적으로 틀린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현대의 페미니스트들은 역설적으로 여성의 해방을 반대한 니체를 여성주의의 새로운 대변자로 보고 니체의 채무를 경감시켜 준다. 특히 “여자에게 가려면 회초리를 잊지 말라”<sup>39)</sup>면서 여성을 비하했다는 입장과 그 반대로 “여성을 진리<sup>40)</sup>”와 동일시함으로써 남근적으로고스중심주의를 넘어섰다고 보는 해석이 팽팽히 맞서면서 니체의 균열된 상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sup>41)</sup>

## 5. 새로운 권위의 대안적 모델

위에서 부정적으로 언급된 것과는 다르게 니체는 이상적인 권위의 전제조건으로서 (1) 승화로서의 문화, (2) 상호승인, (3) 귀족주의, (4) 주권적 개인주의를 꼽는다.

(1) 문화 공동체: 니체는 문화를 “삶의 양식의 단일성”<sup>42)</sup>으로서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구심점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가치의 총체성을 옹호하는 문화공정론은 문화가 개별자를 하나의 높은 이상으로 고양시키고 ‘승화’하는 순기능을 한다는 의미이

36) N 1[153]; KGW VIII/1, S. 41.

37) “Es gibt wahrscheinlich keine reinen, sondern nur reingewordene Rassen, und diese in großer Seltenheit”, M 272; KGW V/1, S. 215.

38) 대표적으로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la femme n'existe pas)”고 말한 라캉(J. Lacan)과 그의 후계자인 지젝(S. Zizek)이 있다.

39) “Du gehst zu Frauen? Vergiss die Peitsche nicht!” Za Von alten und jungen Weiblein; KGW VI/1, S. 82.

40) FW, Vorrede Nr. 4; KGW V/2, S. 20.

41) Hennig Ottmann, “Nietzsche und der Feminismus”, in: *Philosophie und Politik*, Berlin 1999, S. 454-461; 국내의 연구서로는 김정현, 「니체와 페미니즘: 데리다와 코프만의 진리담론을 중심으로」, 『철학』, 한국철학회, 67권, 2001, 79-102쪽; 니체와 여성주의와 간의 논쟁은 신경원 『니체 데리다 이리가레의 여성』, 서울: 소나무, 2004를 참조할 것.

42) UB I 1; KGW III/1 S. 159; Vgl. UB II 4; KGW III/1, S. 27.

다. 문화가 개별자들의 내재된 힘을 극대화시키는 토대가 된다면 그로부터 가능한 올바른 교육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의미에서 교육자에게 권위를 부여하게 된다.

생철학적 전통에서 계승되어 발전되는 니체의 문화철학은 목적론과 유기체적인 사유에 바탕을 둔다. 즉 문화는 개별자들의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토양이 되고 개체와 전체간의 유기적 통일을 가능하게 하며 유대감은 전통에 대한 귀속감과 의미의 지평을 공유하는 데서 생긴다.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전통은 우리의 의식에 앞서있는 삶의 공통분모, 즉 생활세계이다. ‘공기’와 같이 항상 호흡하는 생활세계적 전통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하나의 先질서를 인정할 수 있는 정서적 토대를 형성한다. 니체는 개인이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질을 실현하는 ‘자연의 완성’을 넘어서 ‘자연으로 상승(Hinaufkommen)’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억압이 없는 새로운 문화의 가능성을 엿본다. 생명처럼 성장하는 문화의 과정에서 더 많은 가능성(eidos)을 실현한 단계는 낮은 단계(hyle)에 대해 우월성을 갖게 되고 성숙(Mündigkeit)의 기준에 따라, 예를 들어 어른과 아이들 간에 위계질서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2) 귀족주의: 승인의 문제를 헤겔(Hegel)의 ‘주인과 노예간의 변증법’과 비교할 때 니체의 입장은 반헤겔적, 반변증법적이다.<sup>43)</sup> 니체는 모순과 지양에 바탕을 둔 헤겔의 부정의 철학이 아니라 긍정의 철학을 표방한다. 즉 노예(Reactive)가 부정(Negation), 원한, 불복종 등의 감정에 의해 지배되는 반면에, 주인(Active)은 긍정, 적극성, 운명애(amor fati) 등의 특징을 갖는다. 질적인 차이 때문에 주인과 노예는 화해할 수 없고, 상호간의 승인은 주인계급 내에서만, 즉 서로를 인정하고 긍정할 수 있으며 운명애적인 삶을 사는 귀족들에서만 가능하다.

주인과 노예를 동질화하지 않고 긍정과 부정이라는 평가의 차이에 따라 승인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니체의 기본입장은 노예의 부정성을 기존의 권위를 해체한 근본원인으로 보는 점에서 분명히 귀족주의적이다. 노예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엘리트주의는 보수적이라 비판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질서는 “위대한 정치(Große Politik)”에 바탕을 둔 “피라미드 형태”로 가장 위층에는 소수의 귀족(천재, 예술가)이 자리잡고, 아래에는 다수가 층을 이루기 때문에 동등한 권리나 의무를 주장하는 민주주의와는 대립되고 오히려 ‘플라톤’(Platon)의 정치철학에 근접한다.<sup>44)</sup>

권위의 재복권이라는 과제를 안고 논자는 니체가 약자에 대한 강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면서도 억압이 아닌 생산적인 관계정립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의 엘리트주의는 권위가 제대로 확립되는 만큼 귀족에게는 그에 합당한 의무인 배려(Sorge)를 요구한다. 즉 귀족은 줌(Geben)과 받음(Nehmen) 간의 균형에 근거한 교환적 정의가 아니라 줌을 받음보다 우위에 두는 증여(Schenken)라는 새로운 형태의 덕목을 갖는다.<sup>45)</sup> 이러한 니체의 견해는 서구의 상류층의 의식과 행동을 지탱해온 정신적 뿌리인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이념이 귀족으로 정당하게 존경받기 위해서는 명예(Noblesse)만큼 의무(Oblige)도 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눔, 베품, 기부, 자원봉사,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중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니체의 정의론은 응분의 몫, 업적, 경쟁에 따른 파이의 분배가 아니라 교환 자체를 부정하는 과격성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거부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43) Gilles Deleuze, *Nietzsche und Philosophie*, Bernd Schwibs (übers.), München 1976, S. 170-178.

44) Henning Ottmann, *Philosophie und Politik bei Nietzsche*, Berlin 1987, S. 276.

45) Za. Von der schenkenden Tugend; KGW V/1, S. 92f. “증여하는 덕이 최고의 덕이다.”

그리고 공리주의에서는 파이의 양에 대한 논의가 있을 뿐 행복한 삶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덕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3) 르쌍띠땅의 자기극복: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놀이’의 참여자가 상호간에 맺은 규칙을 준수하려는 일관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니체가 원한(Ressentiment)의 극복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는 이유는 권위의 성립을 위해 그만큼 인간 상호간에 신뢰와 협동이 필요하고 이성애 의한 합의보다 생활 세계의 차원에서 타자에 대한 정서적인 유대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한은 파이의 분배에서 결과뿐만 아니라 그 절차를 부정할 수 있고, 특히 재능과 능력 그리고 업적에 따른 분배의 공정성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변수이다. 니체는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임의적으로 타자와 사회의 권위를 과기하려는 맹목적인 경향심을 극복해야만 한다.

권위를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주권적 개인주의’에 있다. 그것은 사회계약론을 가능하게 하는 ‘약속을 할 수 있는 능력’<sup>46)</sup>을 의미한다. 주권성(Souveränität)<sup>47)</sup>은 절대적인 자유의 가능성이자 동시에 자신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성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역사의식을 필요로 한다. “약속은 미래를 처분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세계가 계산가능하게 되는 미래를 소유하는 ‘의지의 기억을 전제한다.’”<sup>48)</sup> 따라서 니체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자신 안에서 통일하여 스스로 군주(Kommando)가 되기를 요청한다. 니체의 주권적 인간은 완전하고, 자기 의식적이고 강하고 자유롭게 해방된 사람이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에게 복종할 수 없는 사람은 타인에 의한 명령을 받게 된다.”<sup>49)</sup>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은 “위대함, 자기책임, 최고의 개인-주권성으로서의 권위”이다.<sup>50)</sup> 자기권위의 회복을 위해서는 주권의식을 갖고 자기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비로소 타자와의 약속으로서의 사회계약과 함께 공동체의 삶이 시작된다. 따라서 권위의 정립을 위해서는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려는 부단한 자기극복(修身)과 의무의식이 필요하다. 이미 승인된 사회적 정언명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인의 윤리적 준비가 선행되어야만 궁극적으로 “복종하고 싶은 사람도, 명령하고 싶은 사람도 발견하지 않는”<sup>51)</sup> 비지배의 상태(위버멘쉬)에 이르게 된다.

권위가 역할수행에서 평가받을 때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즉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교육자는 피교육자를 가르치는데, 정치인들은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하며 그러한 봉사의식이 신뢰감을 형성한다.<sup>52)</sup>

46) GM II I; KGW VI/2, S. 307.

47) Slobodan Žunjić, “Herrschaft und Souveränität”, in: *Nietzsches Begriff der Philosophie*, Mihailo Djurić(Hg.), Würzburg 1990, S. 146-174. 참조.

48) Urs Marti, “Ist das Tier, das versprechen darf, ein Zoon politikon?” in: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Berlin 41 1993, S. 882.

49) “Nur dem wird befohlen, der sich nicht gehorchen kann.” Za. Von der Selbstüberwindung; KGW VI/1, S. 143.

50) N 11 [294]; KGW VIII/2, S. 356.

51) “Warum so abseits? -“Ich fand Keinen, dem ich noch gehorchen könnte und Niemanden, dem ich befehlen möchte” N 3[1] 70; KGW VII/1, S. 61.

52) 플라톤의 『국가』 제 1권에서 소크라테스는 지도자의 권위의 조건으로서 테크네(techne)를 내세워 각 위계질서에 속하는 계급이 자신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arete)하고, 다른 계층을 증오하거나 월권(능가)을 행사하지 않게 하는 통치력을 꼽는다. 지배의 정당성을 강자의 이익이 아닌 약자의 배려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테크네 개념 자체가 완전성을 지향하기 때문이며, 목자와 양의 관

공동체 의식은 상호간의 배려와 생활세계에 대한 비폭력적인 관계에서 생겨난다. 새로운 권위는 ‘인격화’되거나 ‘물화’되지 않고 자율과 승인 그리고 약속에 바탕을 둔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타자의 힘의 차이와 우월성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는 것이다.

## 6. 나오는 말

우리가 해체주의와 파시즘, 전통적 가치의 부재와 획일화의 공존이 한국과 세계를 위협하는 현 상황을 직시할 때 무엇보다도 사이버 권위를 배격하고 권위의 정당화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요구된다. 규범이 보편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상호간 합의와 자발성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권위를 단순히 폭력이 아니라 인정된 권력으로서, 타산성이 아닌 상호간의 공동관심에 근거를 짓기 위해서는 권위를 철학적 문제로서 다룰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자는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념에 바탕을 둔 서구의 근대성이 한국에 유입되면서 가져 온 위기상황이 바로 전통가치의 붕괴와 권위의 부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았다. 자유와 해방 그리고 인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근대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화두로서 한국의 민주화의 과정에서 역사적인 진보를 이루었지만 권위를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가 권위의 상실이라는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현이라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논자가 니체를 연구방법론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허무주의라는 선언을 통해 신과 관련된 전통적 가치를 해체한 그 성과가 한국적 권위 모델을 찾는 데 유용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탈권위화 움직임과 관련하여 근대성이라는 주제에 수렴되는 여러 문제점과 혼란상황이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다.

니체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며 모순된 관점과 차이가 층을 이루고 있다. 특히 파시즘과의 연루혐의, 정치적 보수성 그리고 극단적인 무정부주의는 권위를 둘러싼 니체 해석에 혼란을 가중시킨다. 일반적으로 니체는 가치의 전복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논자는 기독교적인 권위에 반대하는 그가 권위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적이지 않고 선택적이라는 견해이다.

니체가 제시하는 올바른 권위의 기준과 내용 그리고 정당화 가능성을 살펴볼 때, 귀족주의가 정당한 권위를 복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의 탈권위주의 상황에서 권위는 파이의 분배라는 사회적 정의와 관련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귀족적인 의무가 정서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부각됨으로써 정당성을 얻게 된다.

공존에 필수불가결한 권위가 상호 주관적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언명법이지만 자기 명령의 포기이자 맹목적인 순응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권위는 필요악이다. 수직적 위계 서열이 일방적인 명령의 형태를 띠는 때 모든 의사소통과 합의 그리고 해석학적 과정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자명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보다 우월하게 인정된 권력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반박불가능성으로서 용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때 관건은 인간관계를 수평적으로 보느냐 수직적으로 이해하느냐의 문제, 즉 ‘의사

---

계처럼 지배자는 약자의 보호라는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인 지배자의 덕목인 카리스마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플라톤, 『국가 政體』, 박종현 역주, 서울: 서광사, 1997, 92-120쪽 참조.

소통성'(J. Habermas)<sup>53)</sup>의 허용여부와 범위의 인정이다. 예를 들어 의사와 환자 간의 진료와 상담에서 환자의 물음이 거의 또는 덜 허용되는 경우처럼 권위는 본질적으로 평등한 당사자들의 이해의 과정이 아니고 일방적 반해석학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의사의 권위는 그가 환자와 완전한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인정되는 지식의 전문성을 통해 유지된다. 만약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 권위가 정당화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권위가 아니라 '권리'나 '법'으로 제도화된다. 명령과 복종을 통해 구성되는 구체적인 삶(생활세계)에서 권위의 지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사람의 정서를 고려하여 자발적인 합의에 근거한 내재적인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K C I

---

53)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위해 담론윤리(진리성, 진실성, 타당성)를 내세워 평등한 대화 파트너로서 상대방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은 권위적 권력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관료적, 권위적 지식에 근거한 권력관계를 해체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정현, 「니체와 페미니즘: 데리다와 코프만의 진리담론을 중심으로」, 『철학』 67권, 한국철학회, 2001, 79-102쪽.
- 신경원, 『니체 데리다 이리가레의 여성』, 서울: 소나무, 2004.
- 칸트,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이한구 편역, in: 『칸트의 역사철학』, 서울: 서광사 1992.
- 플라톤, 『국가 政體』, 박종현 역주, 서울: 서광사 1997.
- Assmann, Jan, “Kollektives Gedächtnis und kulturelle Identität”, in: *Kultur und Gedächtnis*, Jan Assmann und Tonio Hölscher (Hg.), Frankfurt a.M., 1988. S. 9-19.
- Deleuze, Gilles, *Nietzsche und Philosophie*, Bernd Schwibs (übers.), München 1976.
- Habermas, Jürgen, *Der philosophische Diskurs der Moderne*, 2. Aufl. Frankfurt a.M. 1985.
- \_\_\_\_\_, *Erkenntnis und Interesse*, Frankfurt a.M. 1973.
- Hobbes, Thomas, *Leviathan*, Jakob Peter Mayer (übers.), Stuttgart 2000.
- Horkheimer, Max, “Autorität und Familie”, in: *Gesammelte Schriften* Bd. 3, Frankfurt a.M., 1988, S. 326-417.
- Kant, Immanuel,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 Göttingen 1985.
- Marcuse, Herbert, “Studie über Autorität und Familie”, in: *Ideen zu einer kritischen Theorie der Gesellschaft*, Frankfurt a.M., 1969.
- \_\_\_\_\_, “Der Kampf gegen Liberalismus in der totalitären Staatauffassung”, in: *Zfs, Jahrgang III*, 1934, Heft 2, S. 162-164.
- Marti, Urs, *Der große Pöbel- und Sklavenaufstand*, Stuttgart 1993.
- \_\_\_\_\_, “Ist das Tier, das versprechen darf, ein Zoon politikon?” in: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Berlin 41 1993. S. 881-894.
- Mehring, Reinhard, *Carl Schmitt zur Einführung*, Hamburg 1992.
- Nietzsche, Friedrich,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G. Colli und M. Montinari (Hg.), Berlin/New York 1967ff. (=KGW).
- Ottmann, Henning, *Philosophie und Politik bei Nietzsche*, Berlin 1987.
- \_\_\_\_\_, “Nietzsche und der Feminismus”, in: *Philosophie und Politik*, Berlin 1999.
- Schöpf, Alfred, Aritikel “Autorität”, in: *Lexikon der Ethik*, Otfried Höffe (Hg.), München 1997, S. 19-20.
- \_\_\_\_\_, *Sigmund Freud*, München 1982.
- Taureck, Bernhard H. F., *Nietzsche und der Faschismus*, Hamburg 1989.
- Weber Max, *Wirtschaft und Gesellschaft*, Tübingen 1972.
- Žunjić, Slobodan, “Herrschaft und Souveränität”, in: *Nietzsches Begriff der Philosophie*, Mihailo Djurić(Hg.), Würzburg 1990. S. 146-174.

## Tradition und Autorität

— Zum Problem der Deskonstruktion und Rehabilitation der Tradition bei Nietzsche —

Yong-Soo, Kang

Die vorliegende Arbeit zielt darauf, die Autoritätsverlust als Krisensituation in Korea zu überwinden und das Alternative mittels der Ursachenanalysen zu suchen. In der traditionellen Philosophie wird das Thema der Autorität zum Objekt der radikalen Kritik degradiert. Von der Aufklärung bis zum Postmodernismus läßt sich solche Tendenz verstärkt und die Autoritätsauflösung etabliert sich in der Mode. Zweifellos ist die Autorität eine entbehrliche Norm in der Lebenswelt. Wir brauchen eine selektive Untersuchung über Produktivität und Affirmativität der Autorität. Nietzsche ist der Kämpfer gegen Autorität bekannt gegeben. Gegen die herrschende einseitige Interpretation bin ich der Meinung, daß er kein Zerstörer der Autorität durch den Tod des Gottes und das Destruieren der bisherigen Werte ist, sondern er hat zur Korrektur der falschen Autoritätsbildung in der christlichen Moral beigetragen hat, die die Überlegenheit des Anderen in Bezug auf Gleichheit und Menschenrechte nicht widerspiegelt hat. Nietzsches Gegenposition ist in der Historie-, Internalisierungs- und Ödipalisierungskritik konkretisiert. Im Gegenteil wird er als der Befürworter für den Faschismus, den Rassismus und das Patriarchat mißinterpretiert. Wir können eine Hierarchie innerhalb der Kulturgemeinschaft bilden, in der die von Natur gegebene Anlage maximal entwickelt wird, Noblesse Oblige als eine Tugend der Aristokratie rechtfertigen und damit Ressentiment zwischen Klassen auflösen. Daraus folgt, daß die Autorität auf die affektive Weise rehabilitiert werden kann.

**Schlagwörter:** Autorität, Tradition, Wert, Überlegenheit, Anerkennung, Aristokratie, Noblesse Oblige

강용수 e-mail : sternentanz@hanmail.net

논문접수	2005년 3월 16일
논문심사	2005년 4월 21일
심사완료	2005년 5월 6일